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월 16일(주일) 제1377호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말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온누리!

12월 31일까지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1년 동안 성경읽기표 따라 성경 전체 일독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가 한창이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공동체가 함께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과정이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서로에게 동기부

여와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낙오하지 않고 성경을 완독하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

새해 첫날 시작된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1년 동안 성경읽기표를 따라 성

경 전체를 일독한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故 하용조 목사의 음성으로 제작한 우리말성경 버전과 드라마 바이블 개역개정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성경읽기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에 이렇게 참여하면 된다. 첫째, 교회에서 매일 오전 각 공동체 총무들에게 성

경읽기 링크(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기독교 OTT '풍당',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읽기')를 보내주면 총무들이 공동체 순장들에게 전달한다. 둘째, 순장은 순 단체채팅방에서 순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성경읽기를 독려한다. 셋째, 순 단체채팅방에서 그날 분량의 성경을 읽고 서로 짧은 나눔을 한다. 감동한 구절이나 느낀 점, "아멘" 혹은 "읽

었습니다"를 써서 공유하면 된다.

서광열 집사(경기A공동체)는 "삼화나 계보 등이 잘 나타나 있어서 성경책만 읽을 때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정리가 되어서 좋다"고 했고, 홍범식 장로(중종로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이 직접 읽어주시는 것 같아 큰 감동"이라고 고백했다<관련기사 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헌혈은 생명이자 사랑입니다”

부활절까지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에 참여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복된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성도들의 헌혈로 혈액 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캠페인이다.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어진다.

1월 14일 기준으로 온누리교회 성도 116명이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에 참여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계정에는 그 귀한 성도들의 간증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진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고, 구준근 성도는 “나의 작은 헌신이 필요한 곳에 크게 사용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에서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 '참여 인증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2: 하나님의 성품>도 선물로 보내준다.

문의: 02-570-7523

당 회

일시: 2022년 1/22(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안간: 당회서기 추인 건, 분과위원장 및 신임장로인사, 신임교역자 인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목회행정실
문의: 02-3215-3265

■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국세청 홈텍스, 전화
문의: 02-796-2243

■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 국세청 홈텍스, 전화
문의: 02-2271-2248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일주일!

1월 21일까지 새벽 6시 모든 캠퍼스 본당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지난해 12월 13일 시작된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1월 21일까지 오전 6시에 진행된다.

예배당 예배, 영상 예배(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CGNTV)로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전 5시 30분부터, CGNTV에서는 오전 6시부터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명과 정체성, 헌신을 권면하고 깨닫고 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 말씀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 김규철 대표(NIBC), 강동진 목사

(보나콤공동체), 천종호 판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 이기원 목사, 이기훈 목사, 노규석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비관하지 말라', '아버지와 아들', '좁은 문과 큰 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두 가지 인생'을 주제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선포할 예정이다.

김미선 순장(SNS청년부)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사랑하는 순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완주하면서 얻은 힘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다<관련기사 6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신년특집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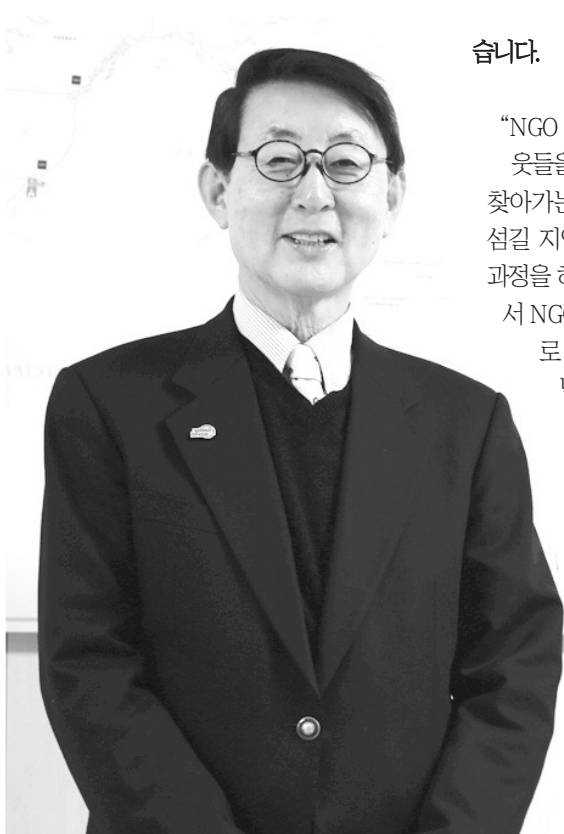
③ NGO 더멋진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NGO 더멋진세상의 발걸음 그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표어로 내걸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누리 사람들, 기관, 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NGO 더멋진세상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27개국에서 가난과 재난 등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의 발걸음 그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있는 이유를 물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하는 일은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찾아가는 정도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섬길 지역과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NGO 더멋진세상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곳에 가져다 놓으시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겨야 할 곳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NGO 더멋진세상에 수인성 질환, 말라리아로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 보건소가 없어서 죽어가는 산모들, 학교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희망도, 미래도 없는 주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역할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우물을 만들고, 보건소와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희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주민들의 저항도 있습니다. 오해를 해서 파벌을 형성하고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 테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 더멋진세상은 지구촌 이웃들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마을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팔의 힌두교 마을이 기독교 마을로 변했습니다. 이슬람 마을에서 성경암송대회를 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데 큰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고, 철저히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가장 먼

저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덕분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철저히 지키는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외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재정은 국내 NGO 단체 중에서 가장 투명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누면 배가 됩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정부, UN 산하기관, 현지 NGO,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역의 규모뿐만 아니라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투명성과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중견 단체를 넘어 명실공히 국제적인 NGO로 거듭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NGO 더멋진세상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강화해야 할 역량이 무엇입니까?

“새해 NGO 더멋진세상은 국제기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7년 NGO 더멋진세상이 UN ECOSOC(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약’ 지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일반협약’ 지위 단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협약의 지위 단계는 ECOSOC(경제사회이사회)의 일부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협약의 지위 단계는 ECOSOC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의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간다 북부에서 수십 년 동안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남수단 난민 5만여 명을 위한 난민촌 프로젝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NGO 더멋진세상이 우간다 북부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KOICA 인도적지원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3년 동안 다양한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을 더 잘, 더 빠르게 이해하도록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필요부터 중간 모니터링 및 최종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밝히 이해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편성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후원금이 지구촌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저금통을 보내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세대들이 기도하며 모아 준 동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온누리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또 청년들이 단기선교사로 자원해서 아프리카 르완다, 말라위, 우간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청년 선교사들과 그들을 기도로 축복하며 보내주신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년 선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섬김이 현지 사업을 하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서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소금과 빛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하는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시선이 일치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출발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뉴스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알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수많은 국제개발 NGO들이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혜대상국에서 베푸는 나라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입을 자임을 기억하고,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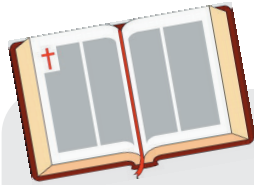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NGO들의 새로운 관심 분야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멋진 환경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NGO 더멋진세상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분리수거 등 생활에서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섬기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가 NGO 더멋진세상이 찾아가는 이웃들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인종, 이념, 종교 지역의 장벽을 넘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전인격적인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사는 마을을 더 멋진 마을로 만드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을의 외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식수, 보건, 환경, 의식 개선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강도 만난 자들과 함께 더 멋진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들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가장 먼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갈망은 역시 행복입니다. 행복이 실재하기에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배부름을 줄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갈망은 그 대상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시편 1편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소개합니다. 시편의 서론이면서 전체를 요약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6구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단어로 시작하고, 6절 마지막 단어는 마지막 자음으로 끝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ㄱ’으로 시작해서 ‘ㅎ’으로 끝나는 시적인 운율과 문학적인 예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행복을 원하는 모든 비밀, 원리, 진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첫 단어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복되도다”라는 감탄어입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그 복의 상태가 쌓여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 참으로 복되도다!”, “오, 놀라운 복들이여!”라며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 탄성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복 되도다”라고 시작합니다. “복되다”는 탄성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시편 1편의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이용하신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기에 “복 되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복이 없는 상태

많은 사람이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보면서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행복은 없다, 불가능하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행복을 헛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고 선언

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망하리로다”입니다. 복된 인생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해서 망한 인생에 대한 탄식으로 끝납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인생을 복된 인생과 망하는 인생으로 구분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의인의 길과 불행에 이르는 악인의 길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입니다.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먼저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설명부터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1절).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면서 복된 상태와 정반대인 상태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 행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부정적인 정죄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정수를 요약한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만 칭송하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철저히 타락한 본질을 드러내고, 회개를 요청하며, 참된 행복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지 아니하며”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표현이 점점 강화됩니다. 악인들의 꾀에서 죄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표현으로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 점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층은 ‘꾀’입니다. 생각의 단계에서 길이 되고, 그 길이 자리가 됩니다. 꾀는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조언입니다. 악에서 나오는 꾀를 우리가 선택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 것을 반복하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 길은 물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생각의 길, 마음의 길, 행동의 길을 의미합니다. 길이란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서 굳어져서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꾀가 결국 길이 되고, 고착화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길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고착됩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시대를 사로잡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

시편 1:1~6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즐겁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두 번째 점층은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죄인’ 이나오고, 그다음에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것에서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나있는 모든 상태입니다. 악의 상태에서 죄가 나오고, 죄의 가장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오만과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있는 상태가 악의 상태라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악에서 죄가 나오고, 그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 점층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따르다’가 ‘서다’가 되고, ‘서다’가 ‘앉다’가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활동적인 것에서 비활동적인 것으로 고정됩니다. 악과 죄가 우리를 점점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굳어지게 만듭니다. 죄와 악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삶을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죄의 종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수많은 생각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꾀를 따르고, 삶의 마지막은 주저앉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저앉고, 마비됩니다. 죄의 포로가 된 것을 알지 못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조롱하고 비웃기만 합니다. 그렇게 주저앉은 것이 복된 상태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복이 없는 상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상태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2절).

복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꾀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악한 꾀를 막지 못하면 죄인들의 발걸음이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상태가 되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됩니다. 악한 꾀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삶의 길이 되고, 우리 삶에 고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악한 꾀를 제거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꾀가 길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에 모든 것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것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즐거워하는 것을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이미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한 삶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즐거워하면 우리는 의인들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악한 자의 꾀가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자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면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고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즐겁게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우리 생각이 악한 꾀를 제거할 수 있는 자양분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3절부터는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두 갈래 길을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대조합니다. 히브리어로 발음을 보면 나무가 ‘예츠’고, 바람에 나는 겨는 ‘모츠’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물줄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때를 따라 적절하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연령대,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어떤 연령대라도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빨리 노년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14면에 계속)

“그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한비, 조은유, 오예단 학생의 ‘차세대 희망심기 저금통’ 후원



우와! NGO 더멋진세상에 동전이 가득 담긴 저금통이 쌓였어요.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기 위해 보내준 저금통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연합해서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차세대 희망심기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모은 소중한 헌금으로 아프리카 르완다, 말라위, 부르키나파소에 사는 친구들에게 긴급구호식품(식량, 영양식품, 위생물품 등)과 학용품 패키지(교복, 가방 등)를 선물하는 캠페인이랍니다.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에는 어떤 친구들이 참여했을까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이한비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조은유 학생(서빙고 꿈팡), 오예단 학생(부천 꿈팡)이 저금통을 후원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단: 유튜브 광고를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 친구들은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일주일에 겨우 고구마 3개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볼 때마다 그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차세대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는 저금통을 모은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았어요!

한비: 항상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참여해요.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제가 모은 동전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은유: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동

전이 생길 때마다 저금통에 넣었어요. 제 돈을 저금통에 모두 넣고 싶었어요!

차세대 희망심기 후원 저금통을 모으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한비: 후원 저금통을 내기 전날 얼마를 모았는지 살펴봤는데 8천 원이 모였더라고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있는 동전을 모두 넣었어요. 2만 7천 원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3만 원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 용돈에서 천 원짜리 3장을 넣어서 채웠어요.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 자주 저금통을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 기억나요!

은유: 저금통을 내는 날이 마침 제가 꿈팡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금통이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우리가 모은 후원금으로 선물도 받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예단: 고모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종종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세요. 저금통을 모으는 동안에 자주 오셔서 용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었던 것을 사고 싶기도 했는데, 그 용돈의 일부를 떼어서 저금통에 넣었어요. 그 일이 기억나요.

한비 학생, 은유 학생, 예단 학생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은유: 아무리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 또 후원할 테니까 힘을 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빠야. 그래서 아들딸인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예단: 내가 모은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성경책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꼭 행복해지면 좋겠어!

한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계속 관심 가져 주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성경책도 읽을 수 있도록 동전도 계속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예쁜 마음으로 모은 저금통을 NGO 더멋진세상(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602호 조양빌딩본관)으로 보내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음식과 옷, 가방, 책 등을 선물할 수 있답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말씀 읽고, 고구마 선물도 받고!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방학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 랍니다. ‘QT하고 고구마먹자’는 2월 3일(목)까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QT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참여한 날짜를 계산해서 고구마와 관련된 간식을 보내드립니다. 가족 QT모임을 포함해서 총 24번 QT를 할 수 있어요.

지난 슬기로운 방학생활 여름편 ‘QT하고 빙수먹자’에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속 2,427가정이 참여했다고 해요(서빙고, 양재 기준). 이번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에는 더 많은 차세대 가정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두 열심히 말씀 읽고, 맛있는 고구마 간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차세대 QT(예수님이랑나랑, 예수님이좋아요, 새벽나라) 교재로 가족과 함께 QT를 하면 돼요.

또 ‘말랑말랑 톨레레게 암송카드’를 활용해서 말씀을 암송하면 돼요. 톨레레게 암송카드 활용 방법은 ‘암송카드 케이스 뒷면’이나 좌측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기록 OTT ‘풍당’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성경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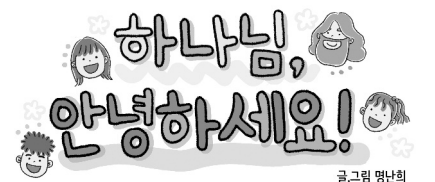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무엇일까요? 아래 박스에 담긴 성경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고,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를 적어주세요.



1. 너희는 세상의 ()이니 ()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 5:13~14).

2. 2022년 온누리교회 표어: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3. 소금과 빛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생각지도 못한 큰 기쁨!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열기가 뜨겁다. 벌써 120여 명의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계정에도 성도들이 헌혈하고 나눔 귀한 간증이 날마다 올라오고 있다. 고민하다 용기 내어 헌혈한 성도, 가족과 함께 헌혈한 성도, 100회, 200회 헌혈한 성도 등 저마다 은혜와 사연이 가득하다. 오재흠 형제(갈렙 청년부)는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헌혈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헌혈을 미뤘었는데 교회에서 귀한 캠페인을 해서 용기 냈습니다. 헌혈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나눔의 기쁨이 이렇게 큰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시작했을 것입니다(웃음). 더 많은 성도들이 나눔의 기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참여하면 더 큰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고 싶은 성도들은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에서 헌혈하면 된다. 헌혈하고 헌혈기념품을 받는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헌혈을 통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구준근 성도

·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 이금나 성도

· 헌혈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피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재료로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 이은나 성도

·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합니다~!
/ 이진기 성도

· 헌혈을 통해 사랑을 나눕니다.
/ 김나은 성도

· 사랑하는 교회와 매년 생명나눔의 기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 제영민 성도

· 생명을 위한 소중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참으로 뜻 깊고 감사합니다.
/ 유건민 성도

·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주원 성도

· 나이가 많아서 약간의 염려와 함께 시작한 헌혈이 오늘까지 4번째입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헌혈을 통해서도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전인숙 성도

· 헌혈을 통해 심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 최훈 성도

· 늘 정기적으로 하는 헌혈이지만 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교회 차원의 생명나눔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정구현 성도

· 코로나19 장기화로 말라리아 지역 선교지에 3년 동안 못 가게 되어 전혈 헌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섬겨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한국 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로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 CHE LIHUA 성도

· 굉장히 오랜만에 헌혈을 했습니다.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하니 보람이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백요한 성도

· 10번째 생명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2022년을 살아내겠습니다.
/ 이정원 성도

· 2022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 이은숙 성도

·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첫걸음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 김성은 성도

2022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AI로 다시 만나는 하용조 목사

홍범식 장로의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홍범식 사역장로(중종로공동체, 71세)는 요즘 말씀 읽는 재미는 물론이고, 또 다른 감동에 푹 빠져있다. 그림고 보고 싶어도 더는 만날 수 없는故 하용조 목사가 성경을 읽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에서는 AI(인공지능) 기술로 하용조 목사를 다시 만나고 있다.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용조 목사가 언제 성경 전체를 다 녹음하셨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하용조 목사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AI(인공지능) 기술로 다시 만난 하용조 목사가 성경을 읽어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물었다.

“하용조 목사님이 옆에서 직접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집중이 정말 잘 됩니다. 생전 설교하시던 모습도 연상되어서 더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아는 성도들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홍범식 장로는 교회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지금은 그날 분량만큼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온누리 성경읽기가 끝나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성도들에게 공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하용조 목사님 목소리로 들으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1년 동안 성경읽기표를 따라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다.

매일 오전 교회에서 각 공동체 총무들에게 성경읽기 링크를 보내주면 총무들이 공동체 순장들에게 링크를 전달하고, 순장은 순 단체채팅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순원들에게 성경읽기를 독려하면 된다. 그날 분량의

성경을 읽고 짧은 나눔을 하는 것도 좋다. 순 단체채팅방에 감동 받은 구절이나 짧은 은혜 나눔 글 혹은 “아멘”, “읽었습니다” 등을 기록하면 된다. 우리말성경 버전(AI기술로故 하용조 목사 음성 재현)과 개역개정 버전(드라마 바이블)이 제공된다. 성경읽기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동체에 소속 안 된 성도들은 앱(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기록 OTT ‘풍당’, 공동체 성경읽기PRS)으로 참여하면 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 자체!

서산온누리교회 정은태 집사의 고백 그리고 다짐



정은태 집사(서산온누리교회, 서산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은혜와 새힘을 공급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심해질수록 느끼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두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정은태 집사는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새벽기도회에서 정은태 집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반드시 할 일을 찾았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 자체가 코로나19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사회 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고, 기죽지 말고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짝꿍도 빛도 하나님 없이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를 말씀으로 이겨내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여기, 말씀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성도가 진짜 있다. 그 주인공은 서산의료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은태 집사(서산온누리교회)다. 서산의료원은 코

로나19 전담병원이다. 충청남도 서북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환자의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을 검사해서 질병 인자를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은 다들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PCR 검

사도 여러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서산의료원에서 행하는 진단검사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정은태 집사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딱 하나 있다. 말씀이다. 정은태 집사는 지치고 힘들 때면 성경을 읽고, 새벽예배에 나간다.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도제목과 은혜

〈성북공동체 마태5순〉

“주님 붙들며 믿음으로 살기를, 건강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자 동빈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 강연순 권사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품을 선포하며 나아가 갈 때 더욱 주님을 신뢰함을 느낍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 김양희 집사

“새벽기도를 통해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 김지은 순모

“주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들었으면 대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김현철 집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 이주현 권사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옥순 권사

〈SNS청년부 김미선순〉

“이 시대와 세대에 필요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을 사랑하는 순원들과 함께 깨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조성훈 형제

〈경기A공동체 C1순〉

“이 땅에 기준을 두기보다 하늘나라에 기준을 두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 이윤석 순장

“내 보물, 재물, 돈을 청지기된 자의 마음으로 다스리겠습니다.”

/ 황보선 권사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 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 김종수 권사

“세상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이 죄인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악과 선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양오순 권사

“분별력을 뛰어넘어 하여 재물을 보는 눈, 보물을 보는 눈이 아닌 땅과 눈물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좋은 눈을 주옵소서!”

/ 이광열 집사

〈서초A공동체 빌립4순〉

“의지적인 용서를 하고 그 끝에 감동적인 용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호유진 집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 건강한 영과 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자녀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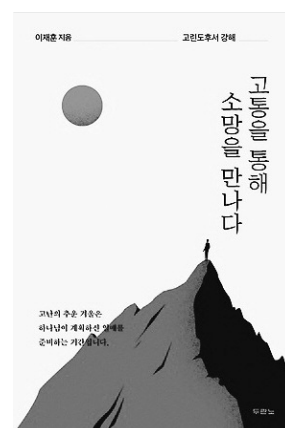
/ 김민경 권사

“나를 위해 간절히 금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라는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 현옥선 집사

새벽기도회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예수님의 진심



〈고통을 통해 소망을 만나다〉
이재훈 저 | 두란노
| 12,000원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심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이 땅에 태어난 바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목소리와 가치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비복음적인 것들에 분명히 “아니오(No)”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비춤으로 아버지가 찾으시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한다.

세상적이고 비복음적인 것들과 대적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다. 세속적인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진

리와 거짓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세상에서 너무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면 영적으로 점검해야 할지도 모른다.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소금의 짠맛을 잃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분명히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은혜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충분하다. 이 책에는 고통 속에 놓인 그리스도인이 참된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귀한 방법이 들어있다.



윤준석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of the World

◆ 1월 10일 월요일

땅에 쌓은 보물, 하늘에 쌓은 보물

마태복음 6:19~21

박종길 목사

오늘 본문은 참된 신앙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1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간, 관계,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물은 돈이나 재물 등 물질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권력, 인기, 건강, 업적, 지위, 지식, 명예 등)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재물과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가지라고 말

합니다. 돈을 지배하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보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20~21절).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을까요? 하늘에서는 좀먹거나 녹슬거나 도둑이 훔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나의 보물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보물 등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물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딤후 6:7~8).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보물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릴 부르실 때 소유한 재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귀

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돈, 시간,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신앙생활의 영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청지기 생활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기 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았는지, 하늘에 쌓아놓았는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보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보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가져갈 수 없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았는지, 땅에 쌓았는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면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음으로 하늘 천국을 상속받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1일 화요일

눈은 몸의 등불

마태복음 6:22~23

이재훈 목사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재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살펴 보면서 재물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물을 바라보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흐름이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 자체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우상, 신약에는 영지주의, 세상의 철학, 이 시대에는 진화론과 유물론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로막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국 유물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지요 재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재물을 보는 바른 눈이 열립니다. 재물을 바르게 보는 밝은 눈으로 그 이면의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첫째, 재물 뒤에 있는 땀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든 경제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재물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땀 흘리는 수고와 더불어

재물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 재물 뒤에 있는 눈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함께 삶을 살아갈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면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소망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재물 이면에 있어야 합니다. 눈물 없이 얻은 재물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눈물로 뿌려진 씨앗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셋째, 재물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 이면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바라볼 때 밝은 눈을 가진 인생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어느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세상의 재물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해서 ‘손을 떼라’, ‘관여하지 마라’,

‘산속 깊이 들어가 재물과 관련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에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재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재물의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되고, 재물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초소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십시오. 영원한 초소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사귀는 데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눈이 올바른 등불이 되는 삶입니다.

◆ 1월 12일 수요일

이렇게 예배하라

마태복음 6:24~25

이상준 목사

하늘 아래 두 명의 주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십계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고, 6~10계명은 공통분모가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탐내지 말고(살인), 타인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간음), 타인의 물질을 탐내지 말고(도둑질), 타인의 진실을 탐내지 말고(위증), 타인의 그 어떠한 소유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1~5계명) 탐심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6~10계명)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골 3:5)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맘모나스’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섬기던 재물신, 풍요의 신 ‘맘몬’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맘몬을 섬길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신,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 12:20)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인색한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25절). 사람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주를 찾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위해서 의식주를 찾지만, 이 패턴이 지속되면 전도(轉倒)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의식주와 물질에 목을 매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보다 하위 존재인 물질에 헌신하면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허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위적 존재인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가면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

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가장 예배자다운 삶입니다.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십일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중에서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1은 10전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3). 구제와 섬김이 일상이 되고, 삶의 일부분으로 녹아지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근심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 1월 13일 목요일

염려의 덫에 걸리지 말라

마태복음 6:26~31

이재훈 목사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세 가지 마음의 짓눌림이 나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죄이고 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염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죄와 같은 차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불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차원으로 생활의 염려를 넣어두셨습니다. 만일 염려의 덫에 걸리게 되면

심판의 날을 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뿐입니다.

염려는 삶에서 가장 비생산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염려의 파도가 밀려올 때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느냐, 편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음에도 염려에 사로잡힌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때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더라도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염려할 일이 다가오면 믿음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새도 없고, 염려하는 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85%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일이 15%인데 그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피해나 충격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염려의 덫에 걸려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새가 가만히 공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날갯짓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 공중의 새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들에 핀 저 백합꽃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피었다가 지는 꽃이라고 대충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풀도 최선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돌보시는데 인간을 얼마나 돌보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흡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준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일의 염려를 당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풀도 입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 1월 14일 금요일

먼저, 그 다음

마태복음 6:33~34

이기훈 목사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고난의 문제들을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부터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앞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삶 가운데 이뤄집니다. 내가 삶을 주관할수록 근심과 걱정이 훨씬 많아집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수록 인생이

더욱 험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정, 재능, 시간, 일과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심, 걱정,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는 많은 부분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영원히 병들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의 짐이 더 커집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상 증후군이 나타나고 인간들이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나의 생각을 나눌어야 합니다. 둘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감추고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삶을 나눌어야 합니다. 셋째,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 재능을 나누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등이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날 때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서 잘못된 습관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크리스천을 위한 다섯 가지 직장생활 원칙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 편하지 않은 직장 사람들(상사, 선배 등)과의 관계에서 매일 눈치 보며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실수가 많지만, 직장 에서 인정받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일도, 신앙도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일도 잘하고 신앙도 잘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나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멘토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오랜 시간 직장생활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일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체득한 몇 가지 원칙을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

첫째, ‘일’을 잘해야 한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해야 한다. 에베소서 6:7에 나오는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엡 6:7)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가 얼마나 ‘눈가림’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 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라고 여겨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내가 만든 서류(보고서, 엑셀시트, 영업 결과 등)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면 과연 기쁘게 받아주실까?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면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둘째, 전문성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대개 회사 업무에서 어려움

배 직원)은 ‘럭비공’ 유형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일하기가 가장 힘들다. 그렇다면 나는 예측 가능한 사람일까? 사안에 따라, 대상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동일한 주제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닌가? 그때그때 달라서 동료들이 종잡을 수 없

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직장이 내가 파송 받은 선교지가 되게 할 수 있다면 손해 보면서 직장생활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상은 애초에 우리의 직장을 선교지로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행동하고, 손해 보는 것 하나 없다면 우리의 직장을 선교지로 바꾸기 위한 헌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의 보상이 회사에서 주어지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변화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동료, 언젠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동료에 대한 기대면 어떨까? 당장은 뒤떨어지고, 덜 받는 것 같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도 말이다. 돌아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때 순간 함께 하신다. 내가 찾을 때 함께 하셨다.

다섯째, 직장생활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박용익 멘토
(Pole2대학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이 동료, 상사, 후배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잘 아는 영역, 전문성과 관련된 일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기도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 이시다. 전문성이 생겼다고 혹은 전문직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구하고, 순종해야 한다.

셋째,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직장 에서 함께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상사, 동료, 후

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이 동료, 상사, 후배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시작된다. 스스로 물어보라. 원칙이 무엇인지,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를 말이다.

넷째, 크리스천으로서 직장에서 손해 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직장에서 조금 손해를 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쇼핑 중독, 그 이면의 결핍을 주목하라!

“어느 날부터 집 앞에 택배가 쌓이고 있습니다. 아내가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구입한 물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겠거니 하고 있지만 약간 심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씬씀이가 더 커질까 봐 걱정됩니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 싫어할 것 같고, 말을 시작하면 싸움으로 변질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택배가 쌓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싶고, 택배가 쌓이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쇼핑 동기를 ‘필요의 동기’와 ‘만족의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필요의 동기는 가정과 개인에게 필요가 있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편의 관점과 아내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오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남편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가정의 필요와 아내가 생각하는 필요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필요가 발생했을 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반대급부 있다면 해당 물건의 구입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부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개인의 만족을 위한 쇼핑도 있다. 필요와 개인 만족이 섞여서 소비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탐색해보면 무엇인가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가 자극을 받아서 쇼핑한다. 필요보다 개인의 만족을 위한 쇼핑이 많아질수록 배우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잔소리와 불만이 관계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쇼핑하는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는 커플이 많아진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쇼핑 내역에 머무르지 말고 배우자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 내면의 결핍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령 어린 시절 언니에게 옷을 물려받으면서 자란 동생이라면 새로운 옷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다면 치장하고 꾸미는 물건을 구입하는 데 남다른 구매 욕구를 보일 수 있다. 자신의 욕구가 늘 좌절되었던 기억을 쇼핑하면서 경험하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잊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쇼핑 형태에만 부부의 대화가 머물지 않고, ‘엮여있는 과거 스토리’, 혹은 ‘결핍의 스토리’를 충분히 나누는 것이다.

쇼핑으로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행동에는 용량의 한계와 기한의 한계가 있다. 그

기간과 강도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배우자와 충분히 이야기하거나 전문상담자와 상담을 통한 내면의 탐색과 치유가 이루어지면 과한 쇼핑의 패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쇼핑을 중독적으로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는 것과 끊었을 때 금단 증세가 심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본인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 자신을 조정하는 정도라면 위험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 시간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편감이 있다면 이것 또한 금단 증상일 수 있다. 중독적 증세가 뚜렷하지 않다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비어있는 마음 한구석을 채우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온라인 쇼핑 이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적극적 경청과 공감, 적극적 지지와 기다려줌이 필요하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쇼핑의 이유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강압적으로 쇼핑을 금지하는 태도

는 부부 갈등과 긴장감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쇼핑 이슈가 부부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에 머물지 말고,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쇼핑이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워가는 과정이라면 그것 또한 의미 있다. 과거 성장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과 공허함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삼을 수도 있다. 과하다 싶은 쇼핑 욕구는 결핍된 마음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욕수와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 결핍으로 인한 행동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배우자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린 것을 채워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부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시편 107:9).

나눔: 배우자의 쇼핑 패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쇼핑의 욕수와 목록, 쇼핑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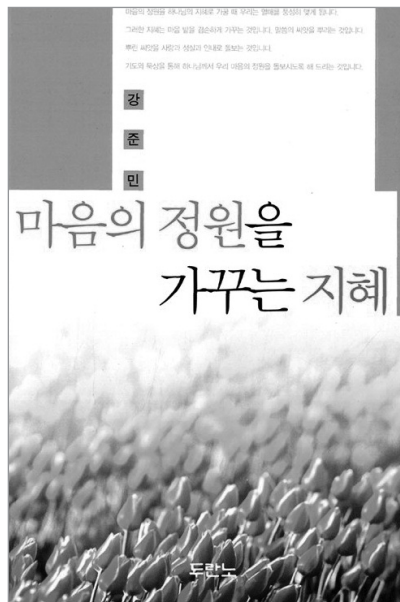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말씀 씨앗과 말씀 묵상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
강준민 저 | 두란노 | 10,000원

어렸을 적에 가족들과 함께 홀로 사시는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목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집 마당에 무성히 자란 잡초들을 뽑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생이었던 나는 마당 한쪽 면에 정글같이 높이 자란 잡초들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뽑았던 기억이 있다. 분명히 몇 달 전에는 집 마당에 줄 세워 이름 모를 꽃들을 심어서 볼품 있는 앞마당이었는데 그새 꽃보다 다른 식물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마당의 모습이 온 데 간 데 없고, 무질서한 모습만 눈앞에 펼쳐졌다. 몇 달 전에 꽃을 심으면서 예쁜 정원 같은 마당을 꿈꿨는데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진 마당의 모습을 보고 속상했던 적이 있다. 동화책에서 읽었던, 영화에서 보았던 형형색색 꽃들과 질서 있게 피어오른 꽃들, 그 위에 벌들과 나비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니는 모습의 마당을 만드는 꿈을 실현하려면 끊임없는 수고가 필요했다. 계속 자라는 잡초들을 뽑고 마당을 가꿔야 했다.

우리들의 마음의 정원이 똑같아서 가꿀수록 아름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욕심의 풀, 원망의 풀, 시기와 질투의 풀을 뽑아내고 돌봐야 향기가 나고, 우리 마음의 정원에 벌과 나비가 찾아온다.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다듬어도 내면을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금세 멀미하고픈 사람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정원을 가꾸듯이 마음을 가꿔야 한다.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잡초로 가득 차게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잘 가

꾸지 않으면 마음에도 잡초가 가득 차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잡초를 정기적으로 뽑아야 한다.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인격을 가꾸는 것이다.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이다. 성실에는 황혼기가 없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무엇을 얻는 것보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한다.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기 때문이다. 잠언에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잠 4:23). 사랑, 긍휼, 은유 등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마음들이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 간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의 원천이다. 악한 생각, 추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 등이 마음에서 나온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잡초 같은 마음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수시로 자라게 된다.

오늘 소개하는 책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를 읽으면서 나의 경험과 책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겹쳤다. 마음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겼고, 수시로 자라는 잡초 같은 마음들을 스스로 정원사가 되어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 편히 와서 쉬을 얻을 수 있는 정원이 되어야 한다. 정원사는 좋은 씨앗을 심는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가꾸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사는 정원을 부지런히 가꿔야 한다. 잠시 방심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도록 내 버려두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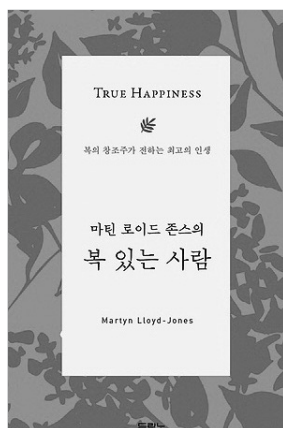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정원을 가꾸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틈이 없도록, 땅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가득하도록,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이 되도록 매일같이 말씀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안사무엘 목사
(CH PLUS청년부)

두란노 신간

행복의 비결



《복 있는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저
| 두란노 | 22,000원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적힌 이 문장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나의 행복을 가장 바라시는 분이 들려주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주인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비결이 책 《복 있는 사람》에 담겼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의 저자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 책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일한 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실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인생의 복’,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도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 1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준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은 분명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시 1:1~2). 행복의 비결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안내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이 말해주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다시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차라리 불에 타 없어질망정 썩어지지 않겠다!



맥케이 선교사

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 진리대학이 맥케이 선교사가 세운 대만 최초의 대학교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드물다. 멋들어진 해변은 맥케이 선교사가 대만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 장소다.

‘열혈 선교사’라는 표현이 부족했던 하나님의 사람 맥케이 선교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이다. 28세에 선교사가 됐고, 1872년 3월 9일 단수이 해변을 밟았다. 전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맥케이 선교사는 이듬해 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차라리 불에 타 없어질망정 썩어지지 않겠다’는 좌우명처럼 맥케이 선교사는 교사, 의사, 목사로 활동하면서 대만 북부 복음화에 헌신했다. 대만 단수이에서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교회 60여 개를 세우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지금도 맥케이 선교사가 세운 병원, 교회, 학교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대만 사람들은 맥케이 선교사를 대만인보다 대만을 더 사랑한 선교사로 기억하고 기리고 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길과 꿈’

살아 있는 모두에는

길과 꿈이 있지

주어진 길과

피어나는 꿈

주어진 걸 지키려

보다 멋지게 꾸미려

길과 꿈은 한평생

씨름하며 춤추지

동경의 진로가

예정의 궤도와

함께 가는 이 신명 나리

엇가는 이 마음 아프지

예수제자학교(JDS) 개강

서빙고, 양재 주간 및 저녁반, 수원 저녁반

2022년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가 개강한다. 서빙고 주간반 3월 3일(목), 저녁반 2월 26일(토), 양재 주간반 2월 24일(목), 저녁반 2월 26일(토), 수원 저녁반 3월 5일(토) 시작한다. 주간반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반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예수제자학교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입학신청서'와 '교역자 추천서'를 작성해서 각 캠퍼스 담당자에게 서빙고 주간반 2월 18일, 저녁반 2월 11일, 양재 주간반과 저녁반 2월 10일, 수원 저녁반 2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간반은 여성만, 저녁반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양재 주간반 아웃리치.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서빙고 주간 010-4173-3134,

서빙고 저녁 010-9182-6804

양재 주간 010-6427-5580,

양재 저녁 010-9019-4648

수원 저녁 010-7702-0419

본부 02-3215-3625, 3220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커넥트 재단장

더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선교 플랫폼

온라인선교 플랫폼 온-커넥트가 재단장했다. 온-커넥트를 활용해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선교사들과 협력하며 선교할 수 있다.

온-커넥트는 통역, 번역, 나레이션, MK교육, 의료상담, 숙소, 차량지원 등을 지원하는 '온-케어', 선교 현장에 필요한 아웃리치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온-프로젝트', 재

능요청, 재능기부

를 마켓처럼 취사

선택 할 수 있는 '온-

마켓'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

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온-커넥

트에 가입할 수 있다.

문의: 02-3215-3111



/ 김영선 기자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리더십 축제

두란노어머니학교가 '2022 리더십축제'를 개최한다. 1월 20일(목)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국내외 각 지역팀장에게 신청해도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2022 리더십축제에서는 한성열 교수(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특강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수료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무료.

문의: 02-2182-9110

두란노어머니학교 1월 온라인 P.P 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1월 온라인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0

청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대학청년부 컨퍼런스 '세상의 소금과 빛'

대학청년부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더원집회와 대학부 컨퍼런스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진행됐다.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더원집회는 1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됐다. 6일 김승수 목사 '부르심', 7일 박종길 목사 '리더십', 8일 이재훈 담임목사 '비전'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선포 강의에서는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서윤화 목사(아

름다운 피켓 대표), 정진호 장로(더웰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강의했다.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에는 하루 평균 7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부 컨퍼런스는 1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렸다. 13일 이상준 목사 '믿음을 따라 GO', 14일 이서진 목사 '소망을 따라 GO', 15일 이재훈 담임목사 '사랑을 따라 GO'를 주제로 설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한민국장로연합회가 신년감사예배로 2022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기도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기초를 쌓자!"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신년감사예배 30여 명 참석

대한민국장로연합회(이하 대장연)가 지난 1월 9일(주일) 방배동 사무실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신년감사예배에는 양유식 장로(대표회장), 박봉래 장로, 김재욱 장로 등 3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했다. 신년감사예배는 1부 감사예배 정국성 목사의 대표기도, 특송, 김진홍 목사의 설교, 2부 단배식은 신년사, 축사, 단배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은

"장로들의 기도가 교회와 나라를 살린다"면서 "더욱 힘써 기도하는 대장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양유식 장로는 "장로들이 각자의 자리와 기도처,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서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기초를 쌓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대장연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장로들의 모임이다. 기도, 교육, 다음세대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난민촌에 희망이 움트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ECD센터 개설, 난민대표 양계 훈련

우간다 북부 남수단 난민촌에서 희망이 움트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부드리마일에 미취학 아동을 위한 ECD센터(Early Childhood Development)를 개설하고, 팔로리나 난민정착촌에서 운영하는 양계훈련장에서 난민촌 대표들이 양계 훈련을 받고 있다.

ECD센터가 개설된 부드리마일은

ECD센터가 개설되면서 미취학 아동들이 깨끗한 교실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팔로리나 난민정착촌 양계훈련장에서는 마을 대표들이 번갈아 가며 양계 훈련을 받고 있다. 마을 대표들은 닭을 기르고 양질의 달걀을 생산하는 방법을 익혀서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온비아 갈라디아서 수강생 모집

온비아 갈라디아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요일 저녁반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오후 7시 30분, 월요일 오전반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오전 10시, 월요일 저녁반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오후 7시 30분, 목요일 저녁반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오

후 7시 30분, 토요일 오전반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11만 5천 원.

문의: 010-3798-7948

온누리교회 '대만선교세미나' 개최

현지 목회자 800명 참석

"대만에 선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00선교본부와 두란노해외선교회가 지난 1월 12일(수)과 13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한 '온누리교회 대만선교세미나'에 현지 목회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교회 대만선교세미나에서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와

한충희 목사(두란노해외선교회)가 '교회론', '온누리교회 목회철학', '두란노해외선교회 핵심 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대만은 복음 전파가 더딘 나라였는데 최근 선교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 아직 대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적지만, 성장력과 열정이 남다른 국가이다.

온누리 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2월 6일까지 지원서, 추천서, 증명서 제출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에서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2월 6일까지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졸업증명서, 임상경력증명서(레지던트 면접상담 100시

간 이상, 인턴 면접상담 100시간 미만 지원가능), 자격증 사본(해당자)을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한 학기당 30만 원이다. 인턴은 4학기, 레지던트는 2학기다.

문의: 서빙고(02-793-2998), 양재(02-570-7536)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안하경 성도(분당B공동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자녀계획

살면서 큰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 입시, 대학입시, 배우자 기도까지 하나님은 늘 내가 원하고 소망했던 것을 응답해주셨다. 그 축복을 감사할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면 응답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25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남편을 만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풍족한 생활을 했다. 우리 부부는 신앙보다 행복에 취한 신혼생활을 했다. 주례해주신 목사님께서 서로 다른 성도가 만났으니 정착할 교회를 정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셨다. 그러나 주말마다 여행 다니느라 바빠서 시간날 때 집 근처 교회를 전전하며 예배드렸다.

결혼 1년이 지나서 자녀계획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에게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나이만 믿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 좌절이 밀려들었다. 세상이 무너질 듯 슬펐다. 아기를 갖기 위해 세사적인 방법으로 노력했다. 1년 동안 시도했지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다. 마음이 점점 조금해져

갔다.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그만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간구해”라고 말씀하시며 온누리교회 등록을 권하셨다.

우리 부부는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일대일제자양육과 큐티, 순예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 특히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되었다. 양육자님이 확신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인데 너무 교만하게 저희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태의 열매 맺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남편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 기도예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주셨다. 우리 부부가 쉽게 아이를 가졌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배웠다.

■ 어느 청년의 이웃 섬김 간증



/ 김다니엘 형제(허브대학부)

일상이 사랑애나눔 같다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매년 겨울 참가했던 사랑애나눔 사역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사역의 모든 과정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사랑애나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감사는 막을 수 없었다.

사랑애나눔 사역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참가하는 사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다. 첫째,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훈련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시간을 가장 먼저 구별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 소중하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개인에게 내재된 가치판단이 결정한다. 경쟁이 빈번한 사회에서 그 가치판단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세상에 스며들 뻔했던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 섬김의 시간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가신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뚜렷해진다. 예수님이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내 삶에 몰입하면 이웃들에게 눈길이 가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지만,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을 때가 있다. 사랑애나눔 사역에서는 추운 겨울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한다. 깊은 사랑과 기도가 없었던 나도 그 시간만큼은 사뭇 진지하게 임하게 된다. 이 섬김을 통해 나에게 허락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다. 나의 유익을 위해 발버둥 쳤던 삶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셋째,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다. 이번 사랑애나눔 사역에 몇몇 년크리스천 친구들이 동참했다. 그 친구들이 물질적 도움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교회에 닫혀있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한 친구는 “다음에도 동참하고 싶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일상이 사랑애나눔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자녀가 되고 싶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고영국 순장(영등포구로공동체)

순장, 주의 은혜 누리는 기회

5년 전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해소시켜준 것이 순이었다. 순장님과 순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돌봄 덕분에 새로운 동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순 식구들과의 진솔하고 정겨운 나눔은 매주 순예배를 기다리게 했다. 교회의 방침에 따라 분순해서 다른 순에 배속되었다. 처음 순이 온누리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요람이었다면, 두 번째 순은 온누리교회 성도로 완전히 녹아지고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는 발판이 되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돌봄을 받은 유아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아들로 자란 것이다. 두 번째 순에서도 순원들과 매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 모두 순장님의 리더십의 결과였다. 오래도록 순에 묶여있기를 원했다. 순원들과의 결속, 공동체와의 연합, 교회에 헌신적으로 순종하며 사역하는 순장님을 보면서 온누리교회의 숨은 가치를 엿볼 수 있었다.

안전한 동지에서 돌봄을 받던 중에 순장으로

로 부르심을 받았다. 5세 아들에게 갑자기 어른이 되라는 요구 같아서 마음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오른 것이 앞선 두 분의 순장님이셨다. 과연 그들의 모범을 내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분들처럼 잘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머뭇거렸다. 하지만 교회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다.

순장의 부르심에 순종하자마자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에 순장학교를 수강하게 되었다. 순장으로서의 도전과 갖춰야 할 준비, 성경적 근거를 필두로 순원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대화법까지 배웠다. 선배 순장의 놀라운 체험담이 현실감과 함께 도전 의식을 일깨워줬다. 강의 구석구석에 순장은 외로운 개척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 안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새겨놓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도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인했다. 순장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임을 부인할 수 없다.

■ 어느 선교사의 간증



/ 김연경 선교사

근본적인 회복과 새 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H2H 훈련이었지만, 시작이 다가올수록 왠지 모를 기대감을 느꼈다. 훈련 2주 차 되던 날 밤,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난생처음 용서를 구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 나도 설교자로서 자주 그렇게 전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면서 나를 인정하지도, 진정한 의미로 사랑하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당연히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H2H 훈련을 시작하면서 막연한 은혜를 구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과 가장 근본적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 특히 ‘선교사의 생애주기’ 강의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감사하며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

H2H 훈련 중에 주셨던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일이다. 청년들과 만남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듣기 원했던 메시지를 듣게 해 주셨다. 가정에서나 사역, 관계에서 대부분 주는 위치에 있던 나를 온전히 받고 누리는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

지난 1기 사역 중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기억과 상처들을 객관적인 시선과 무게로 바라보면서 더 지혜롭고 용기 있게 대처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게 되었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섬기셨던 동기들의 나눔을 통해서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나의 사고 틀을 벗고, 시선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감사하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이상으로 지쳐 있었음을 알고 적잖이 당황했었다. H2H 훈련 직전까지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었다. 그런데 H2H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모든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신 교회와 단체, 말없이 수고와 사랑으로 섬겨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장로칼럼

‘선교하시는 하나님’

남명현 장로
(2000선교본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선교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공동체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시다. 감사를 전하고 싶다.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을 작성하는 것은故 하용조 목사님 때부터 시작된 온누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성도들이 귀한 손길로 봉헌해 주신 선교헌금이 정말 아름답게 쓰이도록 기도하고 있다. 특히 온누리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선교헌금 작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19로 해외 선교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몇 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지키다가 코로나19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증세가 악화해서 급히 한국으로 후송해 치료받고 있는 선교사님도 계신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이 중보기도가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선교사님들이 결연된 공

동체(다락방)와 후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도제목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하나님께서 17년 전 JDS(예수제자학교) 훈련 중에 예언기도를 통해 부족하고 우둔한 나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선교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본래 순종과 반응이 더더서 그 이듬해 부르심에 순종하느라 선교를 배우기 위해 Why Mission? 훈련을 수료했다. 3년 뒤 그 순종의 모습을 어여쁘게 보신 하나님이 장로로 섬기게 하시면서, Why Mission? 훈련 사역으로 부르셨다. 7년 동안 Why Mission? 담당장로로 섬기면서 국내 캠퍼스와 해외 비전교회로 Why Mission? 훈련이 퍼져 나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은사로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섬기는 갈렙선교학교를 개설하도록 인도하시고,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등 다양한 선교 훈련을 경험하고 섬기는 축복을 주셨다.

4년 전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선교 대학을 설립하는 사역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교육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다. 당시 미얀마 정부의 곤란한 요구를 막으신 주님께서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최근 교육 혁신으로 이름난 미네르바 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방식으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사회와 인류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실제적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과 ASEAN 6개국의 기숙사에서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변이로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이를 사용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기대한다.

권사칼럼

“할머니는 점을 잘 치세요?”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차세대 전도팀과 협력해서 어린이 전도를 해 봐야겠다는 구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어린이 전도를 구상하면서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다. 2017년 3월, 손녀가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내게 전화했다. 공원에 나와 있다고 했더니 친구들과 쪼르르 내게 달려왔다. 아이들에게 전도에 대한 계획을 말하면서 낄짜를 정하면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때 한 아이가 큰소리로 말했다. “지은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욕도 잘해요. 그리고 돼지처럼 똥똥해요!”

다른 친구들까지 가세해서 거들었다. 나는 아이들을 타이르며 “그 친구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단다. 꼭 데리고 와야 해”라고 했다. 나의 권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은 “똥똥이는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약간 몸집이 있는 젊은 엄마가 역시 몸집이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누가 우리 지은이를 똥똥하다고 놀렸어?” 그녀는 몹시 화가 난 듯 따져 물었다. 순간 아이들은 당황하며 입이 얼어붙었다. 나는 그제야 사태를 감지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내 전화를 받고 달려왔는데 지은이만 따돌리고 온 것이다. 속이 상한 지은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하소연하니까 그 엄마가 아이들을 혼내주려고 온 것이었다. 지은이 엄마가 지은이에게 누가 똥똥하다고 놀렸는지 손으로 가리켜보라고 했더니 쭈뼛거리다가 한 친구를 가리켰다. 지목당한 친구는 자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발뻘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내 머리에 그날 아침에 목상한 말씀 한 대목이 떠올랐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세급 문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는데 마음을 꺾뚫어 보신 예수께서 지혜롭게 답변하신 내용이었다. 나는 이들의 마음을 꺾뚫어 보는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은이와 친구들 간의 갈등에 조심히 개입했다. “이 친구뿐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마음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모두 지은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나의 말에 아이들이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씩 용서를 빌었다. 지은이 마음이 풀어지는 듯했다. 나는 지은이에게 다가가 “지은아! 속상했지? 난 네 마음을 이해해. 앞으로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친하게 잘 지내”라고 말하면서 꼭 안아 주었다.

한 친구가 집으로 가다가 내게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할머니는 점을 잘 치세요?”라고 물었다. 뜬금없는 질문에 웃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니?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고 답해주었다. 그 아이는 “어쩌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맞히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친구가 떠나자 손녀가 “할머니가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니까 친구가 그런 말을 한 거지요”라고 했다. 사실 손녀도 조금 전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할머니가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마음이 후련했단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는 점을 잘 치세요?”라고 묻던 아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점쟁이가 잘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도자는 지혜와 통찰력,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위기 상황이나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다.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중중로공동체)

지난 2000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나는 아내와 청년 소그룹과 함께 ‘땅끝마을’이라 불리는 전남 강진으로 ‘거지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다. 휴게소에서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를 빵을 먹고 강진에 도착했다. 우리가 들어갈 빈방이 생길 것인지, 어디서 잘 것인지, 어디서 먹을 것인지 등의 생각들이 교차했다. 감사하게도 4박5일 동안 우리가 들어갈 빈방이 있었고, 배불리 먹었고, 열심히 노동하고, 전도하고, 더욱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이 준비해주시고 인도해주셨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그 이후에는 거지전도여행을 떠난 적이 없다. 그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빈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의 외증손자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을 지배하는 황제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호적지를 떠나 타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향해 가깝거나 긴 여정을 떠나야 했다. 요셉과 마리아도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요단강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리는 약 144km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거리와 비슷하다. 요셉은 나귀에 짐과 만식의 아내를 올려놓고 노심초사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했을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숙소를 찾아야 했고, 통과하는 마을마다

호적신고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나그네로 인해 빈방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드디어 144km 여정을 완주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너무 오랜만에 고향을 밟게 된 요셉은 고향 땅에 대한 향수를 누릴 여유도 없이 곧바로 여관들을 돌아다니며 빈방 찾는 일에 몰두해야 했다. 그러나 요셉은 빈방을 찾지 못했다. 그들을 맞이할 빈방은 어디 여관에도 없었다(눅 2:7).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요셉은 남편으로서, 곧 맞이하게 될 아기의 아빠로서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잊지 않았다. 빈방 찾기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아기 예수를 누일 수 있는 ‘빈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요셉은 빈방이 아닌 빈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산파가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아기 예수는 갓 아빠가 된 요셉의 품과 갓 엄마가 된 마리아의 포근한 품에 안겼을 것이다. 그곳은 아기가 누울 빈방도, 빈자리도 아니었다.

빈자리

갓 태어난 첫아들(눅 2:7)이 눕게 될 첫 번째 빈자리를 만났다. 구유였다. 아기 예수께서 소나 양, 염소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에 누이셨다.

예수님을 모시는 데는 빈방이 불필요했다. 빈자리만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얻게 된 넓은 내 속의 공간을 내어드릴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내 영과 마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한쪽으로 밀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일단 빈자리를 내 속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너저분한 내 속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모셨더라도,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거주하실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대신 피 흘려 죽임당하는 산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행복에 이르는 길

노인이 되어서는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늘 후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건강하든, 쇠약하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두려워하는 환경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연령, 시대에서도 열매 맺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와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시 92:12-14).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영혼의 싱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내린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연령, 상황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복은 추구한다고 얻지 못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 가는 겨와 같도다”(4절).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하게 느껴지나면 껍데기 같은 ‘겨’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겨는 작은 바람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까닭은 겨에 불과한 것을 붙잡고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을 즐

거워하면 나의 행복은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뿌리 깊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살 것입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심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5-6절).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로 무엇을 택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만큼 심판이 기다립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살기에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았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고, 악은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 앞에 준비되지 않은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장 큰 재앙처럼 다가온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 행복으로 느껴지면 살아온 인생이 행복한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철’은 인생의 모든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여야 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은 기뻐하고 환호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똑같은 모습이 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두려워하고 떨고, 주변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한다면 불행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주변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울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준비된 삶이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입니다”(시 37:28).

참된 행복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그 심판 앞에서 삽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움직입니다.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시작뿐 아니라 끝도 숙고해야 합니다.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고, 죽음 너머에서 벌어질 일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죽음을 꿰뚫어 보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이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의 위협과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참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는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제야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죽음을 꿰뚫어 보는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주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서성렬 장로
(사회선교본부 남대문희망공동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없는 작은 자에게 흘러간다. 사랑의 신비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보이는 형제에게로 사랑이 흘러간다.

준눈(이집트 영성가, 신비주의자)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하나님이 준눈에게 “내가 그대의 하나님이니 원하는 능력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 말하라”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가 지나가는 곳에 나무는 즉시 푸른 잎과 꽃을 피우고, 마른 샘은 샘물이 다시 솟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해주는 능력을 주십시오.

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제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 기적을 행한 것을 모르고, 사람들도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몰라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에 대한 의식도 없이 대상과 하나 되어 삶이 된다.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내려놓았다. 사업이 바빠지만 바쁨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포도주가 비싸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행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자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 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이들이 자주 만난다. 내가 그랬다. 은퇴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사역하면서 때때로 인정받기 원하고, 성취감으로 나를 드러내려 했던 일이 많았

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열매를 보여주거나 홍보가 필수라고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내게 주님께서 준눈처럼 사역하는 남대문희망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2010년 양재 이웃사랑팀 소수 봉사자와 여호수아청년부가 부활절에 남대문5가 쪽방촌을 방문한 일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서울역 10번 출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작은 선물꾸러미를 챙겨 남대문5가 쪽방촌을 심방했다. 그 이후에는 거리의 작은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 첫 예배는 청년 15명과 성인 1명, 쪽방촌 주민 3명이 드렸다. 그날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봉사자들도 그날의 기쁨을 가슴판에 새기고 지난 10년 동안 남대문희망공동체 사역을 이끌어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0여 명까지 모였는데 지금은 주일 영상 예배에 1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내가 한 일은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뿐이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냄새나던 곳이 거룩한 공간으로 변하는 느낌을 받았다.

또 나 자신이 온전히 살아있음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헤의 날개 아래 있는 포근함이었다. 하나님은 그 포근함으로 작은 자들 가운데 현존하신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받은 것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밥이 되어 주고, 밀거름이 되어 줄 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위해 죽고, 먹고, 씹어서 밀거름이 되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남대문희망공동체 봉사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가 푸른 잎과 꽃을 피우고, 마른 샘은 샘물이 다시 솟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자신이 한 것조차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푸른 잎과 꽃이 피고, 마른 샘에서 샘물이 다시 솟아날 것이다.

문의: 02-3215-3434

결혼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고 권수길, 차금옥(금호중앙교회 집사, 권사)의
아들 권우준(온누리교회)

이각희, 신향순(은혜교회 집사)의 딸
이임배(온누리교회)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을
이성훈, 유순애(논산성결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이상규(온누리교회)

고 박문철, 최효정(은평성결교회)의 딸
박미숙(은평성결교회)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
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 자립 위한 후원과 자원
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마을수호봉사단 모집
내용: 프로그램 보조, 홍보 콘텐츠 제작, 방역 활동 등 자원
봉사자 모집
문의: 강유림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50플러스센터 사.아.다 공모전 개최
내용: 사소하지만 아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15분 영상
으로 제출
문의: 선조원PM(070-4304-6913)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재능나눔 강의봉사단 모집
내용: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 신장년(50세이상)의 재능 나
눔 강의 봉사 진행
분야: 인문/교양, 독서/글쓰기, 법률/경제, 문화/예술 등
문의: 김유진 사회복지사(02-6953-7134)

재 정

실업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천

1/4(화) S브릿지 이혜경 성도 부친상 고 이윤주
1/7(금) 한강 김정아 성도 모친상 고 김형갑
1/7(금) 한강 이철원 집사 부친상 고 이두복
1/8(토) 찬양 이진원 성도 모친상 고 최정희
1/8(토) 양천 노학선 성도 모친상 고 심영순
1/10(월) 중종로 이명선 권사 모친상 고 윤요남
1/11(화) 서초B 이연희 성도 부친상 고 이청수
1/11(화) 강남B 윤석일 성도 모친상 고 이명자
1/11(화) 송파A 이은숙 권사 부군상 고 정시철
1/12(수) 분당B 홍원미 성도 부친상 고 홍의찬
1/12(수) 서초B 김선영 권사 부친상 고 김규창
1/12(수) 강촌 박옥희 권사 부군상 고 심영섭
1/12(수) 일본어예배 고 구가치예교 집사
1/13(목) 한강 김휘자 권사 부군상 고 이현세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하루 20분
2022년 공동체 **성경** 읽기 와 함께
성경 통독에 도전하세요!



우리말성경 공동체 성경읽기

하용조 목사의 AI 음성으로 듣는 성경 말씀



2022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드라마바이블 더빙에 참여했던 배우들이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

출연 한인수 장로, 장광 장로, 임동진 목사 등

풍잉 앱과 유튜브 채널에서 **공동체 성경읽기** 검색

